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金 道 薰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1. 한국 주력산업들의 경쟁력 위기

한국의 전통 주력산업들이 경쟁력 저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주력산업들이 전통적인 경영방식, 생산기술, 경쟁력 요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되던 IT, BT 등의 신산업과 벤처비즈니스는 한국산업의 장래를 짊어지고 가기에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전통산업들에 신산업 및 벤처비즈니스의 강점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는 어느 정도 꺾였으나 제조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이나 제조업 지원 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을 감안할 때, 제조업은 향후에도 전체 경제의 성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불변가격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아직도 꾸준히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는 기술·지식집약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첨단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등 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여 온 장치산업형 중화학공업의 성장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반면 반도체와 통신기기를 필두로 한 첨단산업들의 비중은 급속도로 늘어나 최근에는 전체 제조업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적 주력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제조업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몇몇 주력산업의 경우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전통 주력산업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총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수출 주력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고, 이 중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품들은 수출 증가율이 20% 전후를 보여 첨단산업의 30% 전후에 버금가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완제품 조립·**

가공 생산 위주의 생산체제를 지속함으로써 전통 주력산업이나 새로운 주력산업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공히 우리 산업이 추가하는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대규모 장치형 산업에서 성공을 거두어 왔으나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 산업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미흡하였다.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산업은, 한편으로 전통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기술·지식산업에서 선진국들과의 경쟁을 치러야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전통 산업에서 중국 등 후발공업국들의 치열한 추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주된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등에서 우리의 수출 비중은 점진적으로나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의 수출비중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경쟁력 요인의 확충이 산업경쟁력의 원천

한국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증가에 의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 지식기반화, 나아가 지구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통적인 경쟁력 요인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70~1999년의 기간 동안 자본이 무려 78%의 성장기여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노동이 16%의 기여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술진보의 개념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성장에 6% 정도를 기여하는 데 그쳤다. **우리 경제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집약적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기여는 커졌는데도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는데, 이는 자본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자본의 역할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율은 높아진 반면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았던 1980년대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진보 등의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결국 **향후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지식기반”의 확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의 확충은 시장경제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발전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지식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동연구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공동생산, 자국 실정에 맞는 생산방식의 개발,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

육제도의 개선 및 기업의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정보 하부구조의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등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의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으로 지식기반을 산업경쟁력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식집약산업의 육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먼 미래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서의 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각한 벤처기업의 역동성을 활용하는 길을 터야 한다. 대기업은 조직규모의 비대화에 따른 관료주의적 특성 등의 이유로 혁신의 수용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므로 지식기반의 확충 과정에서는 종래의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지식기반의 확충이 새로운 산업경쟁력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혁명을 전통산업에 제대로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우리나라 전통 주력산업은 생산기술 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분야가 많고 나아가 상당한 분야에서 브랜드 성가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IT, BT, ET, NT 등의 이른바 첨단기술 요소들이 제대로 접목된다면 모든 산업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정부 공히 주로 기계, 장비 등의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어 왔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의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그것의 효과적인 관리능력에 큰 차이가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으며, 이런 사정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지 못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향후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력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기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입함으로써 이윤 획득의 기회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독자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인터넷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새

로운 시장개발,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에 의한 기업활동, R&D, 기술·인력개발, 기업 조직, 마케팅,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의 이른바 지식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활동 등이 새로운 경쟁력 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수준에서는 아직도 많은 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경영자의 마인드 고착화, 기업 경영조직의 경직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전통적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IT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기업들도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경영 마인드, 경영 방식은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둔 채, 겨우 하드웨어를 갖추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혹은 IT화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정도이나, 이러한 정도로는 진정한 IT화 혹은 신산업 혁명의 접목으로 기대되는 경쟁력의 향상 나아가 새로운 재도약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기업의 경영 전반 혹은 적어도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만이 한국 사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필자약력

서울대 국제경제학과卒 (1979)

프랑스 파리1대학 국제경제학 DEA(1987), 박사(1990)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1987~1990)

프랑스 르아브르大 및 르망大 강사 (1989~1990)

통상산업부 장관 자문관(1997)

OECD 무역국 Principal Administrator (1997~1999)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선임연구위원. 산업정책실장 (1979~ 현재)